

인간-반려견 산책이 드러내는 인간-너머 도시의 가능성

권소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들어가며

인간중심성, 근대성으로 표방되는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인간-너머(more-than human) 도시, 다종적(multispecies) 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달(최명애, 2024), 비둘기(김준수, 2018), 길고양이(이종찬, 2016; 전의령, 2017), 백로(최명애 외, 2023) 등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도시 동물이 만들어가는 인간과의 얽힘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정서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김세영 & 박형인, 2017).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가구 중 11.6%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으며, 반려견은 다른 반려동물과 다르게 스트레스 완화와 본능 발산을 위해 산책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반려견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개는 시각, 후각, 청각 등의 측면에서 감지영역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야생적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된 반려견 산책은 지금까지 가려져 있어 비가시화되었던 존재들을 드러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반려견과 주 2회 이상 산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참여 관찰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생산적인, 쓸모있는 장소로서 도시가 아닌, 비인간 존재가 남기고 가는 흔적으로 가득 찬 다종 도시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배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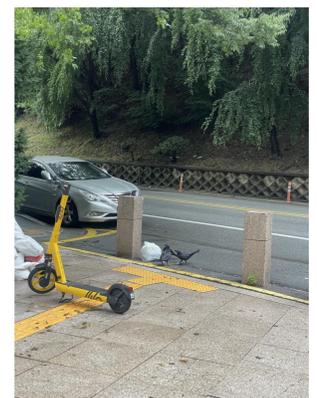
- 반려견 산책이 개의 본능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필수적이지만, 반려견 산책의 이유로 여러 연구참여자가 “똥을 싸야 하니까”라고 답했을 만큼 반려견 산책 중 행해지는 주 활동 중 하나가 반려견의 배설행위이다.
- 참여 관찰 시 “쉬나무”, “똥 맛집”이라고 특정 구역을 지칭하는 애칭이 있을 만큼 도시는 반려견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의 구획되어지지 않은 배설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 반려견의 도시 배설 행위는 반려견 보호자에게 반려견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어 기대하게 되는 기쁜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를 좋아하지 않는 시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 특히 인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지만,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은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배설물을 치우기만 한다면 배변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특히 소변의 경우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제외하고는 수거의 의무조차 없는 상황이다. 즉,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모두 일체 금지되지만, 반려견에게 도시는 배설의 장소로 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 반려견 배설은 배설물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매개되는 전염병, 기생충으로 인해 혐오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국 모래 놀이터 중 13.8%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었으며, 이 원인으로 길고양이나 반려견의 배설물이 지목되고 있다.

사체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되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 그러나 생명을 잃은 동물의 신체 즉,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 폐기물로 분류된다. 비인간 동물은 살아 있을 때는 동물 그 자체로 보호받지만, ‘살아 있음’ 너머의 과정에서는 필요가 없어진 물질로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 유기체가 죽음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이 시작되면서 독특한 냄새가 나거나 유독성 물질이 발생하는 부패 과정이 시작된다.
- 부패는 오염된, 비위생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상태로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로 여겨지지만 생명력이 다한 유기체의 분해과정은 생태계의 필연적인 과정 중 하나이다.
- 국내에서는 연간 1만 건 이상의 동물 차길 사고(로드킬)와 연간 800만 건 이상의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산을 뚫고 도로와 철도, 터널 등이 건설되고,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미관을 위해 유리창을 반짝이는 동안 도시 동물들은 갑자기 마주친 자동차와 유리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고 있다.

나가며

반려견 산책은 인간이 혼자 걸을 때와 다르게 걷기 불편한 흙길이나 인적이 드물어 방문을 꺼렸던 공터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도시 공간을 체험하게 해준다. 위생적이고 생산적인 것들만이 모여있는 ‘드러난’ 도시와 다르게 도시 잔여 공간은 ‘언제나 그랬듯이’ 배설의 장소이자 (잉여물의) 투기(投棄)의 장소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 계획은 배설물, 쓰레기, 사체와 같이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도시 외곽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으로, 단단한 쇠파이프안으로 넣어 보이지 않게 두었다. 하지만 흩어 뒹긴 분변은 자연의 시간을 통해 부패가 아닌 발효의 과정을 거쳐 거름으로 순환되고, 인간이 먹고 버린 닭뼈나 돼지뼈는 흙속의 세균을 통해 질소순환과정을 통해 식물의 영양분이 될 수 있다. 인간-너머의 도시, 다종 도시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통치를 받는 도시가 아닌 도시와 자연이 서로의 의도를 순행하거나 역행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도시(living cities) (hinchliffe & Whatmore, 2006)를 너머 삶의 일환으로서 죽거나 부패할 수 있는 도시를 상상해야 한다.

1980년대 까지 인간은 삶의 공간인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죽음’이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이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죽음은 ‘제자리를 벗어난’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못한 죽음이 되기도 한다. 도시에서 축출하고자 했던 자연도, 도시와 자연의 대립이 점차 완화되면서 도시의 밀집된 환경에서 종과 서식지와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며 만들어내는 재조합 생태학(recombinant ecology) (Barker, 2000)을 이루며 자투리 공간, 잔여 공간이 도시 커먼즈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